괴테클럽 독서 감상문

작성자	오동환	토론일	2022/7/1
도서명	좀머 씨 이야기	저자	파트리크 쥐스킨트
별점	4/5		
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	어린아이의 눈으로 자신과 가족, 좀머 씨의 이야기를 풀어낸 점이 재미있었고,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았음에도 좀머 씨를 통해 문제의식을 잘 드러낸 점이 만족스러웠다. 다만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등장인물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아쉬웠다.		
한줄평	관심 있기에 무관심한 - 고독은 외롭고 소통은 괴롭고		

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

"그러다 죽겠어요!"

"날 좀 그냥 제발 놔두시오!"

주인공이 사소한 일로 자살을 생각하다가, 나무에 올라가 좀머 씨를 목격한 장면

감상

입학 전에 이 책을 한 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, 읽고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왜 제목이 좀머 씨 이야기냐는 것이다. 이 책에서의 좀머 씨의 분량은 아주 한정적이며 오히려 풍켈 선생님이나 카롤리나(특히 이 카롤리나와의 에피소드도 너무 재미있었다)와 주인공의 이야기보다도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그럼에도 주인공인 좀머 씨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점은, 이 책의 문제의식이 그러하듯 주인공과의 상호작용이 없었음이라고 생각한다. '날 좀 제발 그냥 내버려두'라는 좀머 씨의 말마따나 이 책은 여타의,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문학 작품과는 다르게 오히려 소외를 호소한다.

세간에는 좀머 씨에 관한 괴소문이 많았다. 장애가 있다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아내에 관한 이야기 등 좀머 씨는 그 마을의 유명인사다. 그런 가십에 끼지 않는 인물은 주인공 뿐으로, 좀머 씨의 말 '날 좀 그냥 내버려두시오!'라는 무관심으로의 호소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. 관심을 통한 무관심, 이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. 이런 점은 세계적인 유명작가가 되었음에도 미디어와 언론에 노출을 꺼리는 작가의 호소가 드러난 것 같기도 하다. 쥐스킨트를 좋아할수록 그에게 관심을 삼가달라는 일종의 암시일까.

좀머 씨를 다룬 비중과 마찬가지로 절제된 분량이 만족스러운 한편, 귀엽고 선한 인상의 문체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.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형, 누나와 갈등을 빚는 내용이나 어릴 때 상처를 준 카롤리나와의 이야기가 좀 더 등장했으면 하는 욕심이 들기도 했다. 작가의 익살스러운 센스와 소소하면서 귀여운 이야기의 흐름을 보았을 때, 추가적인 에피소드를 포함해 약 200쪽가량의 분량이 되어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을 듯하다.